

▶ 전북도립미술관, 안경자의 '붉은 산, 내적 풍경' 전

'자연물'에 대한 흔한 감성 거부한다

안경자 작가는 '자연'을 질료로 삼되, 작품에선 자연물에 대한 보편적 감성을 거부한다. 작가는 자연의 관찰과 재현에 의존하지 않고 단순화하며 상징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현장에서 스케치한 할 뿐, 대개의 작업은 작업실에서 그녀의 감정을 되살리며 오랜 시간 기억에 의존하며 작품을 묘사한다.

'보는 자연'과 '그리는 자연'이 분리된 작업을 하고 있기에 산은 그 자체로서 웅장하고 아름답지만 화면 형태로 변조되면 감성과의 밀착으로 내밀화되어 나타난다. 결국 작가의 개성이 투영된 산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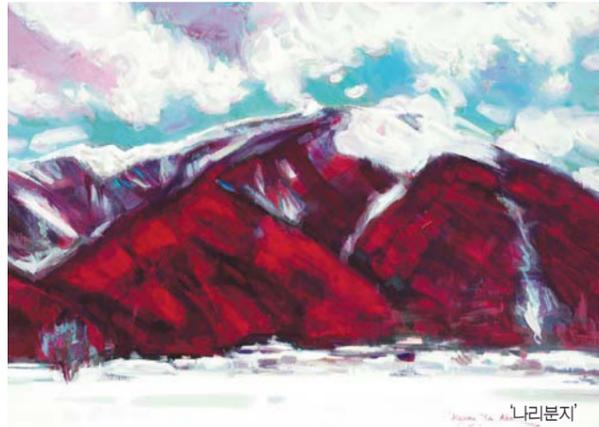
화가의 붓질은 표현주의 작가처럼 숨겨져 거칠면서도 부드럽다. 작품은 사실적 재현과 색채가 철저히 배제된 지극히 작가만의 주

관적인 강렬한 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흡사한 폭의 추상화를 연상케 한다.

또한 작가의 정물화, 꽃의 연작 역시 세밀한 표현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덩어리처럼 감각적으로 그것이 꽃임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다양한 인물 작품들도 볼 수 있는데 이는 인물화라기보다는 하나의 풍경화처럼 그려진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오고 버려 온 우리의 자연과 삶의 풍경이라는 정신적 의미를 담아내고자 했다"면서 "작품을 통해 자연과 삶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생명체에 대한 찬미와 의지를 열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작가는 전주대학교 미술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독일 국제미술전, 한국미술중국전(청도시 미술관 초대), 북경798 당대중환 우수미술작품 아트페어 등 기획 및 단체전에 200회 이상 출품했다. 전북미술대전 특선 4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경기성남미술대전 대상, 상형전 목



“보는 자연과 '그리는 자연' 분리 작품을 통해 자연과 삶에 대한 본질적인 것 이야기하고 싶어



초대작가로 활동 하고 있다. 안경자 작가의 여섯 번째 개인전은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오는 13일까지 열린다. /정해은 기자

핑크 플로이드, 그들은 어떻게 음악을 만들었나?

신간도서 - 마크 블레이크 '위시 유 워 히어'

4장의 빌보드 앨범 차트 1위, 최초의 프로그레시브 록 밴드 싱글 차트 정상, 741주라는 믿기 힘든 최장기 빌보드 앨범 차트 등재 기록, 1996년 미국 로큰롤 명예의전당 입성, 2005년 영국 음악 명예의전당 입성...

프로그레시브 록의 상징인 영국의 전설적인 록 밴드 '핑크 플로이드'는 이미 갖고 있는 앨범이라도, 리마스터되거나 박스 세트르 나오면 또 다시 구입하는 팬들을 보유한 팀이다.

1967년 1집 '더 파이프 앳 더 게이트 오브 Dawn' (The Piper at the Gates of Dawn)으로 데뷔한 이래 강렬하면서도 실험적인 록사운드와 무대, 철학적인 노랫말로 시대를 풍미했다. 지금까지 2억 50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 국내 번역 출간된 전기 '위시 유 워 히어 (Wish You Were Here) : 핑크 플로이드의 빛과 그림자'는 핑크 플로이드를 모르는 독자를 고려한 책은 아니다.



애초 원서가 그랬지만 친절하지도 않다. 한국판은 원서보다 두껍고, 무겁다. 책의 제목도 그들의 노래 제목을 그대로 옮겼으며 표지 그림도 미니멀하되, 분명하지 않다.

대신 핑크 플로이드 마니아에게는 더 없는 심화서다. 핑크 플로이드를 왜 좋아해야 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이들을 찬사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글쓴이인 영국의 록 저널리스트 마크 블레이크는 대신 밴드 구성원들의 내면에 가까이 가려 노력하거나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어떤 식으로 합의하거나 충돌하면서 음악을 만들었는지 돌아본다.

**680쪽, 3만3000원, 만나푸르나. /뉴시스



도, 문화재 안전관리 평가 '최우수'

전북도는 2017년 문화재 방재의 날 맞아 문화재 안전관리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도는 문화재청이 전국 광역·시·도와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문화재 안전관리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문화재청장상을 수상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목조문화재 U-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사전예방 활동, 재난대비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 실시, 교육·훈련 및 매뉴얼 정비 등을 통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 최초 문화재 모니터링에 첨단장비 드론활용 시범사업을 시행한 점과 기관장 주재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평가돼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도는 최첨단 장비 드론활용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육안 점검이 어려운 문화재의 모니터링 한계 극복, 목조 U-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등 사전예방 활동 전개 및 ICT 접목 문화유산의 체계적 이력관리를 통해 전북 문화재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더욱 안전한 문화재 방재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해은 기자

도내 5개 공연예술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공모 선정

전북도의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5개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2017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공모사업에서 13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향전북의 이미지 제고에 청신호를 켜다.

이번 성과는 국비 총액의 11.5%에 해당하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도 차원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전주세계소리축제 4억 원, 남원춘향제 4억8,000만원, 전주대사습놀이 2억원, 부안마실축제 1억2,000만

원, 입실필봉마을축제 1억원 등이다.

이들 사업 중 춘향제는 전국 5번째, 전주세계소리축제는 7번째로 전국 최상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필봉마을축제는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농악을 바탕으로 한 공연예술축제인 점을 높이 평가받아 이번에 새로이 선정됐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전

북도가 공연예술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자 예향의 본고장으로서 전북 뒤편을 찾아 온 것 같아 뿌듯하다"면서 "이를 통해 도민의 문화향유 체감을 확산하고, 전북투어패스 연계 등을 통한 공연관광 활성화에 주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특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 <2017년 2월 10일>

<p>▷쥐띠 48년생: 예상외로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는 운. 60년생: 도움을 주는 사람이 생기니 어려움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라. 72년생: 적대감을 드러내지 마라. 화합에 신경 쓰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84년생: 작은 것은 얻을 수 있으나 큰 것을 구하려 오히려 재앙이 따른다.</p>	<p>▷소띠 49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결손함과 더불어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겠다. 61년생: 그동안 했던 언행에 대해 구설이 따르는 운. 73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자존심 상할만한 일이 생긴다. 85년생: 아직은 기운이 미약한 상황이니 뒤로 물러서서 때를 기다려라.</p>	<p>▷호랑이띠 50년생: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이 많다. 6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운이니 처음부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74년생: 노력한 것보다 좋은 상황으로 마무리가 가능하다. 86년생: 방심은 금물. 숨은 폭병으로 인해 신경을 많이 쓰인다.</p>	<p>▷토끼띠 51년생: 처음에는 구설이 따르나 나중에는 편안해진다. 63년생: 배우는 것에 관대하라. 반드시 되돌아온다. 75년생: 원수와의 복이 따르는 운이니 공손함을 잃지 않는다면 도움이 있을 것이다. 87년생: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운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 것.</p>
<p>▷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중간에 반복적으로 운이 막히는 때다. 내실을 다져야 하는 때. 64년생: 문서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76년생: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은 운이다. 상대도 나와 같이 자중하라. 88년생: 먼저 얻으면 나중에 잃게 되는 운이니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p>	<p>▷뱀띠 53년생: 원하는 것이 있다면 늦은 오후시간을 이용해볼 것. 65년생: 좋은 기운과 좋지 않은 기운이 함께 공존하는 운. 웃을 일과 언쟁은 일이 같이 있겠다. 77년생: 익숙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실수가 생길 수 있는 운이다. 89년생: 큰 움직임은 오히려 운을 막히게 하니 때를 기다려라.</p>	<p>▷말띠 54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 나서지 말아야 한다. 66년생: 올라오는 화기를 가리안하러. 상황만 악화된다. 78년생: 금전운이 막히니 무리한 지출은 삼가야 한다. 90년생: 작은 것은 가능하나 큰 것에 욕심을 부리면 화가 생기는 운.</p>	<p>▷양띠 55년생: 문서에 걸힘이 비추니 문서를 주고받는 일에도 좋은 운이다. 67년생: 편안함에서 권태를 느끼기 쉬운 운. 79년생: 주변사람들로 인해 기쁜 일이 생긴다. 91년생: 큰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p>
<p>▷원숭이띠 56년생: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때다. 68년생: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운. 적을 만들지 마라. 80년생: 가까운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이다. 92년생: 소화가 계통이 약해지는 운이므로 차가운 음식은 피하라.</p>	<p>▷닭띠 57년생: 타인의 덕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니 구설도 함께 따르니 주의하라. 69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구분하라. 81년생: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중국에 가서는 빛을 발하게 되는 운이다. 93년생: 주변의 상황에 영향을 받게 되는 운이다.</p>	<p>▷개띠 46년생: 타인과 불화가 예상되는 운이다. 생각 없이 한 언행으로 다툼이 생기니 주의하라. 58년생: 먼저 작은 것을 손해 보면 후에 큰 이득이 생긴다. 70년생: 모든 일은 일찍 움직여야 얻을 수 있으니 때를 잘 맞춰 움직여라. 82년생: 가장 가까운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되새기야 할 때.</p>	<p>▷돼지띠 47년생: 정신적으로 맑은 때가 아니니 세심한 일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59년생: 큰 움직임은 좋지 않으니 원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71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만족스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3년생: 독단으로 행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라.</p>